



버들바구미 / *Cryptorhynchus lapathi* (Linnaeus, 1758)

구분	설명
생물분류	곤충
속국명	버들바구미속
과국명	바구미과
과명	Curculionidae
일반특징	<p>몸길이는 8~10mm이며, 색은 흑갈색이다. 등에는 검은 비늘 조각이 있고 날개 뒷쪽과 몸 아래에는 흰색 비늘털로 덮여 있다.</p> <p>가슴 등쪽의 앞부분과 가운데 걸쳐 3개의 돌기가 있으며, 날개의 작은 틈에도 3개의 돌기가 있는데, 이것들은 검은색 비늘 조각으로 덮여 있다. 가슴 중앙에 높게 일어나 들뜬 선이 있다. 날개에는 조잡하고 큰 점무늬들이 줄지어 있으며, 머리와 가슴에는 주름 모양의 점무늬가 있다.</p> <p>애벌레의 몸길이는 10mm 내외로 색은 불투명한 흰색이다.</p> <p>1년에 한 번 볼 수 있으나 생활 과정이 매우 불규칙하다. 7월 상순부터 8월 중순에 성충이 나타나는데, 그 중에서도 7월 상순부터 하순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다. 성충의 수명을 약 40일이다.</p> <p>줄기에서 즙을 빨아 먹으며 나무 껍질 속에 알을 낳는다. 4월경에 부화한 애벌레는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까지 급속히 성장한다. 시간이 지나 거의 다 성장한 애벌레는 식물의 관다발 가운데 부분을 갉아 먹어 구멍을 만들고 6월 상순~7월 하순에 번데기가 된다. 번데기로 있는 기간은 2주 정도이다.</p> <p>어린 애벌레는 나무 껍데기 밑을 둥글게 파먹는다. 어릴 때에는 식물이 입는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점차 성장하면서 톱밥과 같은 것을 배출하므로 알 수 있다. 대부분 알의 모습으로 겨울을 나며 애벌레나 성충으로 겨울을 지낼 때도 있다.</p>